

# 하루를 위한 말씀 전례의 제안- 교회 1

(초점: 평화의 표시)

## 제1 독서: 1 코린 13: 사랑의 송가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화답송 (시편 86)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입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 나이다.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당신의 힘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주님, 당신은 저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알렐루야

- ◎ 알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3, 33-35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루를 위한 말씀 전례의 제안- 교회 2

(초점: 봉헌 재산의 공유( 나눔 ))

### 제1 독서: 사도행전 4,32-35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화답송: 시편 33

◎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

◎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다 함께 그분 이름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과.

그 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 알렐루야

◎ 알렐루야.

“그 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 복음: 마르코 10, 17-22, 29-30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